

景氣, 과연 過熱인가

郭 相 瓊

〈高麗大學校教授·經博〉

I. 序 言

景氣란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經濟現狀의 변동을 말하는데 그 대표적인 經濟指標가 國民總生産(GNP)의 변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廣義의 景氣에 비교해서 좁은 의미 또는 좀 더 구체적인 景氣를 말할 때에는 企業의 生産活動이 변하는 程度를 指稱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이 두 가지 의미는 지표를 달리 할 뿐 그 內容에서는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경제활동의 변동은 곧 기업의 生産활동이 변하는 것이 되고 기업의 生産활동 여하에 따라 일반경제활동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景氣란 일반경제활동의 변동인데 흔히 企業의 生産活動이 이를 主導하고 代表하며 기업이 경기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특별히 기업의 活動상태를 기준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景氣가 좋다 또는 나쁘다에 대한 見解는 항상 일치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景氣가 어떠한 景氣指標에 기준을 두고 따져야 하는 것인데 정확한 지표를 두고 경기를 평가하기에 앞서 극히 主觀的인 不正確한 느낌에 기준을 두고 景氣의 狀況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指標를 무시하고 자기의 느낌만으로 마음대로 경기를 평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는 극히 非合理的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평가나 견해는 자기의 利害關係나 개인적인 편견에 의해 좌우되

기 때문이다. 작년 초에 일부 무책임한 사람들이 體感景氣라는 극히 주관적인 見解로 景氣를 왈가왈부하였는데 이러한 생각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비양심적으로 현실을 평가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경제에서는 반드시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동시에 있을 수 있고 各個體間의 利害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景氣를 종합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景氣에 대한 公式指標를 제쳐놓고 자기 나름대로의 景氣를 내세워 옳다고 주장하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나쁜 불신풍조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歪曲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II. 最近의 景氣動向

최근의 경기동향을 좀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평가하기 위해 1970年代의 景氣에 대한 몇가지 특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970年代에는 景氣가 좋았던 것만은 사실이다. GNP의 年增加率이 대체적으로 10%를 넘었고 이에 따른 많은 巨視經濟指標도 好景氣에 걸맞는 것이었다. 好景氣였으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1970年代의 好景氣는 대단히 인위적인 것이었다. 정부가 高度成長을 위해 적극적으로 民間經濟活動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과감한 그리고 무분별한 財政金融政策을 수행하여 어느정도까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해 그해의 GNP 增大를 위해 官權力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자연적인 順理에 따라 景氣가 저절로 좋아졌던 것이라기보다 정부의 意圖에 의하여 景氣가 올려 세워졌었던 것이다. 둘째, 앞에서 지적한 특징과 연관하여 1970年代의 好景氣에 심각한 부작용이 隨伴되었다. 이러한 부작용은 好景氣를 不景氣로 유도하게 할 뿐만 아니라 經濟活動을 극히 非能率化 및 資源配分の 歪曲을 가져와 國家의 經濟的 損失을 초래하고 발전을 그만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1970年代의 高度成長에 따른 부작용은 인플레이션, 外債累積, 國際收支惡化, 不動産投機, 社會·經濟的 諸般不條理 등이었다. 이러한 부작용은 다음의 성장과 발전에 저해가 되어 1980年代 初의 低成長을 감수하게 만들었다. 세째, 1970年代의 高度成長은 결과적으로 경제의 構造的 모순을 초래하였다. 전반적인 需給의 불균형으로 경제의 조화가 결여되어 浪費가 심하였고 經濟力의 집중으로 生産活動의 構造的 모순을 드러냈으며 이로 인한 富와 所得의 偏在가 심하고 分配의 效率이 떨어졌다. 가장 두드러진 矛盾의 現狀은 質的向上을 도외시하고 量的膨脹에 급급하여 不實需給이 심하였다. 또한 順理的인 발전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調和도 문제였으려니와 實物市場과 資本 및 金融市場의 不協和, 內需基盤의 不實, 企業의 生産活動 및 家計의 消費活動 등이 非正常的이었던 點 그리고 企業의 所有와 經營間의 正작된 關係가 이루어지지 못한 點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이와 같이 1970年代의 經濟成長은 인위적이고 무리한 성장이었다는 관례로 경제의 모순과 비효율성을 수반하는 不實한 成長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80年代에 들어와서는 착실한 장기안목의 경제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與件造成이 急先務였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경제발전의 阻害要素를 먼저 해결하고 成長을 추구해야만 꾸준한 효과적인 경제발전을 착실하게 달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官主導의 억지성장을 民主主導의 자발적인 순리의 성장으로 전환하는 經濟政策基調의 확립, 經濟 및 社會의 安定構築을

위해 貨幣 增加率의 억제와 適正水準 유지, 需給의 構造的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企業의 整理 또는 調整, 對外經濟關係의 調和와 質的向上을 위한 開放化推進, 分配의 改善과 能率의 向上을 위한 經濟內部的 合理性追求 등이 먼저 해결되어야 효과적인 장기의 경제성장이 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1980年代에는 이러한 課題의 해결이 成長에 優先되고 이의 實踐與否가 발전의 갈림길이 되었던 것이다. 다만 이러한 課題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量的膨脹의 成長率을 희생시켜야 했다.

國民計定

<表-1> (單位: %)

	經濟 成長率	經濟活動別成長率			最終消費支出 增加率	總固定資本形成 增加率
		農林 漁業	非農林·魚業			
			製造業			
1963	9.1	9.5	8.8	16.1	3.1	27.3
1964	9.6	15.6	4.9	9.9	6.5	-9.3
1965	5.8	-1.0	11.6	20.5	6.3	27.1
1966	12.7	11.6	13.5	17.3	6.8	59.5
1967	6.6	-5.9	15.9	21.6	8.3	22.6
1968	11.3	1.3	17.2	27.2	9.6	37.4
1969	13.8	10.5	15.5	21.6	9.4	24.8
1970	7.6	-1.4	12.1	19.9	9.5	1.0
1971	8.8	3.1	11.0	18.7	9.2	6.2
1972	5.7	2.9	6.7	14.8	4.8	0.3
1973	14.1	6.2	17.0	29.9	8.1	27.8
1974	7.7	7.4	7.8	15.7	7.9	9.8
1975	6.9	4.9	7.6	11.9	5.4	10.7
1976	14.1	9.4	15.6	23.9	8.0	19.0
1977	12.7	2.6	15.8	16.0	7.1	29.0
1978	9.7	-9.2	14.7	21.3	10.3	33.3
1979	6.5	6.7	6.5	10.3	7.6	8.6
1980	-5.2	-21.7	-1.7	-1.1	0.2	-10.6
1981	6.6	22.4	3.8	7.5	3.6	-4.0
1982	5.4	3.3	5.9	4.1	4.2	12.9
1983	11.9	6.5	13.0	12.2	7.2	17.1
1984	8.4	0.2	10.0	14.8	5.2	10.7
1985 ^b	5.1	5.9	5.0	3.5	4.8	2.8

註: b는 잠정치.

焦點

이러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成長率이 鈍化되어도 이는 결코 未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 단계의 발전을 위한 基盤構築으로서 또 經濟發展의 效率性 提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었다. 安定基盤 위에서 內實이 있는 착실한 經濟成長을 추구하는 것이 先進國으로 발전하는 하나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1980年代의 經濟的 主課題는 이러한 것이고 최근의 景氣動向도 이러한 脈絡에서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表-1>에서 보면 1965년 이래 1978년까지 石油波動期間을 제외하면 대체로 年 10% 이상의 高度經濟成長을 해왔다. 그러나 1980年代에 들어오면서 成長率은 현저히 떨어져 1980년부터 1985년까지의 기간에 年平均 5.5%에도 미

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成長率의 鈍化 대신에 1980年代의 總通貨(M₂) 增加率은 年 25% 내외에서 최근에는 13~14% 내려졌고 都賣物價指數의 增加率도 20% 이상에서 1% 이하로 낮아졌으며 國際收支赤字幅도 현저히 낮아졌다. 이로써 經濟의 安定化와 國際收支改善에서는 큰 成果를 거두었고 이를 바탕으로 成長率을 높이면 착실한 高度成長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今年的 經濟成長率은 1983년의 好景氣 때보다도 더 높을 展望이다. <表-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上半期の GNP 增加率이 이미 10.9%에 달했고 2/4分期의 成長率은 12.1%나 되었다. 남은 2分期 동안에 성장률이 더 높

生産活動 및 需要別 增加率
(1980年 不變價格基準)

	〈前年同期對比(%)〉					
	1985 P			1986 P		
	1/4	2/4	上 半	1/4	2/4	上 半
國 民 總 生 産	4.5	4.2	4.3	9.6	12.1	10.9
國 內 總 生 産	5.0	4.4	4.7	10.0	11.6	10.8
産 業	5.8	4.8	5.3	10.3	12.4	11.4
農 林 · 漁 業	8.7	7.9	8.2	18.0	-0.8	5.1
鑛 工 業	4.3	2.3	3.2	11.1	16.4	13.9
建設 및 電氣·가스·水道事業	7.6	4.5	5.8	6.3	12.1	9.6
서 비 스 業 ¹⁾	6.5	7.1	6.8	9.7	11.1	10.4
政府 및 民間非營利서비스生産者	2.4	3.4	2.9	3.4	3.8	3.6
國內總生産에 대한 支出	5.0	4.4	4.7	10.0	11.6	10.8
最 終 消 費 支 出	5.9	4.3	5.1	5.8	6.4	6.1
民 間	4.8	4.4	4.6	6.2	6.5	6.4
政 府	13.3	3.4	8.2	2.9	5.4	4.1
總 固 定 資 本 形 成	5.7	0.5	2.6	10.5	18.3	15.1
(機 械 設 備)	9.2	2.4	5.2	21.4	24.6	23.2
財 貨 와 用 役 의 輸 出	1.0	1.8	1.5	18.5	27.9	23.5
(商 品) ²⁾	1.1	5.2	3.3	19.6	26.2	23.1
財 貨 와 用 役 의 輸 入	-0.5	-1.9	-1.2	14.4	18.9	16.7
(商 品) ³⁾	0.6	-1.7	-0.6	13.1	20.0	16.6

註 : 1) 都·小賣 및 飲食·宿泊業, 運輸·倉庫 및 通信業, 金融·保險·不動産 및 事業서비스業, 社會 및 個人서비스業, 金融歸屬서비스(控除를 포함).

2) FOB 基準. 3) CIF 基準. 4) P는 잠정치.

國內總生産에 대한 支出(1980年 不變價格)

<表-3>

(單位: %)

	1984			1985 p			1986 p		
	1/4	2/4	上半	1/4	2/4	上半	1/4	2/4	上半
A. 最終消費支出	6.5	5.2	5.8	5.9	4.3	5.1	5.8	6.4	6.1
1. 家計	8.0	6.1	7.0	4.8	4.3	4.5	6.2	6.5	6.3
2. 民間非營利團體	19.0	13.9	16.4	7.1	14.0	10.5	11.5	10.8	11.2
3. 政府	-3.0	-0.6	-1.8	13.3	3.4	8.2	2.9	5.4	4.1
B. 總資本形成	30.8	26.1	28.0	-0.5	-0.8	-0.7	21.3	13.6	16.8
1. 總固定資本形成	14.7	13.1	13.7	5.7	0.5	2.6	10.5	18.3	15.1
2. 在庫增加	-	-	-	-	-	-	-	-	-
C. 財貨와 用役의 輸出	19.2	14.3	16.5	1.0	1.8	1.5	18.5	27.9	23.5
D. (控除) 財貨와 用役의 輸入	16.7	10.9	13.7	-0.5	-1.9	-1.2	14.4	18.9	16.7
E. 統計上 不一致	-	-	-	-	-	-	-	-	-
國內總生産에 대한 支出	13.3	10.0	11.5	5.0	4.4	4.7	10.0	11.6	10.8

註: p는 잠정치.

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금년중의 年成長率은 12%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내다 보이고 있다. 1980年代 初의 마이너스 成長은 물론 5~6%의 成長率에 비하면 대단한 好景氣라 할 수 있다. 특히 작년의 5.1% 成長率에서 크게 높아진 것이다. 1983年 下半期와 1984年 上半期의 好景氣에서 1985년에 景氣가 크게 후퇴하자 마치 마이너스 成長이라도 하는 것과 같이 극심한 불경기라고 혹독하게 불평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호경기에 過熱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을 만큼 景氣는 上昇局面에 있다.

1980年代에 들어와 1983~84년의 好景氣가 1984~85년의 不景氣로 돌아섰다가 1986년에 다시 好景氣로 轉換된 것이다. 1981년부터 우리나라의 景氣는 GNP 增加率로 볼 때 8% 기준에서 현저히 낮아졌다가 1~2年 週期로 循環하고 있다. 이러한 週期的 變動率의 循環을 따져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첫째, 1979年 後半부터 1982년까지의 低成長은 경제의 여러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體質改善하는 代價라 할 수 있다. 1980년도의 마이너스 成長은 與件의 특수한 사정과 農業生産의 불황이라 할 수 있지만 대체로 이 기간의

經濟的 특징은 경제의 質的 向上을 위한 體質改善 시기라 할 수 있다. 둘째, 1983~84년의 好景氣는 前期의 低成長에서 벗어나 활발한 投資活動과 體質改善效果의 결과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때의 경제는 體質改善이 지속되면서 安定이 構築되고 好轉의 期待感으로 좋은 局面을 맞았으나 能力 이상의 好景氣에 접어들어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이는 過剩投資를 유발하고 이로 인하여 경제는 다시 低成長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다만 輸出需要가 景氣를 左右 하였던 것보다 投資가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表-3>에서 보면 1984年 上半期까지의 景氣를 주도한 것은 投資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美國, 日本 등 先進國의 景氣가 好轉되었던 탓으로 輸出도 19% 이상이나 증가, 30%를 넘는 投資增加에 加勢되어 높은 成長率을 나타내었다. 輸出→投資→一般景氣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投資가 기대 이상으로 되고 輸出을 비롯한 전반적인 需要가 이를 감당하지 못한 결과로 過剩投資로 이어져 1982~83년의 好景氣는 지속되지 못하고 말았다. 셋째, 1984年 末에서 1985年 末까지의 低成長은 극심한 投資不振과 輸出增加率의 鈍化가 주요 要因이었다. 投資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輸出增加는 미미한 정도에 그쳤다. 前年の 高投資와 高輸出을 이 기간에는 감당할 수 없어 增加率이 급속히 떨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 기간의 경제성장률은 5.1% 밖에 되지 못하였다. 한편 이러한 낮은 成長은 다시 今年의 高成長으로 이어지게 된다. 네째, 금년의 好景氣는 豫測된 것이었다. 日本 恩貨의 評價切上과 油價下落 그리고 올림픽景氣에 대한 기대 등이 예상되어 輸出增大→投資增大→經濟의 活氣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豫測은 쉽게 할 수 있었다. 이러한 外部與件 好轉에 따라 일어난 好景氣가 더욱 더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이루어졌던 投資의 效果와 암암리에 지속된 技術蓄積 그리고 經濟體質改善과 安定化 등의 效果가 奏效하였기 때문이다. 다섯째, 統計指標로 보면 增加率이란 前期에 비해 늘어난 것을 말하기 때문에 높은데서 낮은데로, 낮은데서 높은데로 움직이게 마련이다. 能力이 상으로 좋았으면 그 다음에는 낮아지기 마련이고 能力이 하로 낮아졌으면 다음에는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景氣는 週期現狀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年7~8%의 成長能力을 지녔다면 5%와 10%의 成



長率은 반복하여 순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섯째, 금년의 景氣 또는 이와 비슷한 好景氣가 앞으로 2年餘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輸出의 價格競爭力이 이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고 그 동안의 技術蓄積이 效力을 나타낼 것이며 석유를 비롯한 世界原資材 價格이 安定狀態를 유지하는 한편 올림픽을 비롯한 國內與件이 景氣를 계속 活性化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망은 어디까지나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그대로 맞을 것이라는 假定下에서 가능한 것이다. 우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면 전망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Ⅲ. 현재의 景氣에 대한 評價

경기순환 과정에서 금년에 好景氣를 맞게 되는 原因은 앞에서 지적되었다.

지금의 好景氣에 대한 특징을 다시 요약해 보면 첫째, 輸出增大에 의한 好景氣. 둘째, 輸出增大에 따른 設備投資增大가 뒷받침된 景氣. 셋째, 經濟發展與件(體質改善, 安定化 등)의 改善에 의한 效果의 奏效. 네째, 이러한 결과로 과거와는 달리 인플레이션과 國際收支赤字를 수반하지 않는 高度成長. 다섯째, 輕工業보다도 重化學工業의 높은 成長(〈表-4〉參照)을 수반한 好景氣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금년도 經濟成長率을 다른 주요 국가의 성장과 비교해 보면 〈表-5〉와 같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가장 높은 經濟成長率을 보이고 있다. 특히 日本과 西獨이 마이너스 成長으로 돌아섰고 臺灣이 8% 成長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0%를 넘는 높은 成長率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어느 나라의 景氣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景氣가 好況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면 현재의 景氣가 過熱인가 혹은 正常인가? 景氣의 過熱與否를 절대적 지표에만 근거를 두고 평가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성장률이 낮으면서도 과열일 수 있고 높으면서도 정상일 수는 있는 것이다. 景氣의 過熱與否는 바람직하지 못한 副作用이 수반되는지의 與否, 能力과 效率 등에서 분수에 맞는 景氣인지 그리고 生産

製造業 部門別 成長率

(1980年 不變價格 基準)

<表-4>

<前年同期對比(%)>

	1984			1985 Ɔ			1986 Ɔ		
	1/4	2/4	上半	1/4	2/4	上半	1/4	2/4	上半
製 造 業	17.6	17.0	17.3	4.2	2.0	3.1	11.5	16.9	14.3
輕 工 業	13.0	11.2	12.1	3.0	0.9	1.9	6.7	9.6	8.2
食 料 品	11.6	10.9	11.2	10.8	10.0	10.4	11.1	8.0	9.5
飲 料 品	15.5	7.8	11.1	5.3	1.3	3.1	-1.3	6.3	2.8
纖 維	7.1	7.3	7.2	6.2	0.0	3.0	6.6	10.9	8.7
衣 服	12.8	10.8	11.8	0.8	-2.0	-0.7	3.7	5.9	4.8
製 材 家 具	10.6	6.2	8.2	2.5	-4.0	-1.0	-15.3	-4.9	-9.9
고 무 製 品	53.3	44.1	48.7	-16.1	-7.1	-11.7	28.7	21.3	24.9
重 化 學 工 業	21.9	22.0	21.9	5.4	2.9	4.0	15.5	22.4	19.2
化 學 製 品	12.1	8.5	10.3	7.7	9.3	8.5	7.5	7.2	7.3
石 油 精 製 品	8.5	26.7	17.3	4.7	5.3	5.0	6.0	17.0	11.8
非 金 屬 鑛 物 製 品	16.4	10.5	13.1	2.1	4.1	3.2	-5.7	9.5	2.7
一 次 鐵 鋼	12.5	13.4	13.0	0.2	-0.2	0.0	8.1	10.9	9.6
一 般 機 械	36.3	14.8	22.6	9.5	11.1	10.5	36.5	37.6	37.2
電 氣 機 器	48.3	35.6	41.1	1.8	-7.6	-3.3	19.3	47.5	33.9
輸 送 用 機 器	16.7	52.7	35.4	20.2	9.5	13.9	29.7	15.5	21.7

註: Ɔ는 잠정치.

主要國의 經濟成長率

<表-5>

<前年同期對比(%)>

	1985 Ɔ	1986 Ɔ	
		1/4	2/4
韓 國	5.1	9.6	12.1
美 國	2.7	3.8	1.1
日 本	4.4	-2.1	-
西 獨	2.4	-1.5	-
臺 灣	4.7	8.1	8.1
싱 가 포 르	-18	-3.4	0.8

註: 1) 美國, 日本, 西獨은 前期比 年率.

2) Ɔ는 잠정치.

·消費·分配의 合理的 活動 如何 등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景氣는 수반되는 副作用을 근거로 볼 때 過熱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通貨 價値의 上昇에 의한 價格競爭力과 技術蓄積에 의한 質的 競爭力 등의 改

善으로 輸出이 증대되어 好景氣를 맞았다면 내부적으로 일부러 경기를 억지로 好轉시킨 것이 아니라 주위 與件의 好轉으로 이루어진 好景氣이기 때문에 通貨增發이나 補助 등과 같은 政策的 수단에 의해 인위적인 尤발로 일어난 경기가 아니다. 따라서 지금의 경기는 인플레이션이나 국제수지악화를 수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觀點에서는 過熱景氣라고 할 수가 없다. 둘째, 우리나라가 착실한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能力에 비추어 보면 현재의 景氣는 확실히 過熱이라 할 수 있다. 여러가지 條件과 能力을 고려하여 소망스러운 경제성장률로 보아온 것이 年7~8%였다. 현재의 경제성장률은 이 바람직한 성장률을 훨씬 上廻하고 있다. 현재의 좋은 여건에서 임시로 이루어진 高度成長이라면 이 成長率은 지속되기가 어렵다. 즉 현재의 好景氣는 그 바탕이 可變적이고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外部與件이 變함에 따라 큰

기복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다. 현재의 好景氣가 당분간(1~2년)은 유지된다고 하여도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경기는 우리의 능력과 분수를 넘어선 過熱이라 할 수 있다. 세계, 현재의 경기가 生産·消費·分配 등의 活動을 과열상태로 몰아붙이고 있는가를 볼 때 현재의 경기는 아직까지 過熱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生産活動에서 볼 때 극심한 供給不足, 過剩投資, 무분별한 事業擴張 등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부분적으로 稼動率의 急上昇이나 投資의 급속한 增大 등이 없지 않으나 전반적인 生産활동을 볼 때 過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消費活動에서는 1980年代에 들어와 不景氣와 安定化를 경험하면서 활동이 크게 合理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축도 크게 증대되었고 과잉 消費風潮도 많이 시정되었다. 현재의 好景氣下에서는 무분별한 過多消費나 浪費가 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우선 쓰고 보자는 風土보다 消費를 計劃하고 調節하는 側面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消費活動面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過熱景氣現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不動産에 대한 熱氣도 아직까지는 높지 않다. 무엇이든지 사두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에서 假需要가 급격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심에 조심을 거듭하는 風土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현재의 景氣가 分配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안정속에서의 고도성장이기 때문에 일부 階層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급조된 경기가 아니므로 分配를 특별히 不均等化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현재의 호경기는 不景氣(低成長)에서 나타난지 1년도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에는 過熱現狀을 안 보이고 있으나 이것이 지속되면 過熱現狀이 나타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 不況을 경험하고 호경기를 맞았을 때는 不況을 의식하기 때문에 조심하기 마련이지만 호경기가 지속되면 期待心理가 작용하여 經濟活動이 過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連鎖反應으로 過熱이 加速되는 것이다. 이를 진정하기 위해서는 安定化를 계속 추구하여

그 기반을 확고히 다져 놓아야 하고 투기를 억제하며 財政金融의 긴축으로 기대심리를 억제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要因과 側面에서 종합해 볼 때 대체로 현재는 過熱景氣의 특징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指標上으로 현재의 成長率이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있는 점과 이같은 성장률이 지속되면 앞으로 과열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IV. 結 言

景氣란 循環하기 마련이다. 현재의 好景氣는 好機에서 나타나 安定基盤 위에서 經常收支改善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한 것이다. 이러한 好景氣가 지속될 수 있다면 더 없이 다행스러운 것이다. 현재의 경기를 두고 과열이라고 염려하고 있으나 지금과 같은 경기가 계속된다면 염려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바람직하지 못한 부작용이 수반되어 경제를 歪曲시키고 심한 不景氣로 反轉될 가능성을 우려할 뿐이다. 나쁜 의미에서의 過熱景氣를 유발시키는 것은 사람들의 行動에서 오는 것이다. 사람들이 合理的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效率을 무시하여 무분별하게 행동하는데서 문제는 발생하는 것이다. 호경기를 맞아 꾸준한 기술향상, 합리적인 투자, 분수에 맞는 소비, 신용에 바탕을 둔 거래, 互惠原則에 입각한 實力輸出入, 적절한 經濟政策遂行, 投機心理의 억제 등으로 경기를 지속시킨다면 過熱도 아닌 착실한 高度成長을 지속하여 더욱 더 效果的인 발전을 이루어 先進化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好景氣를 不景氣로 轉落시키지 않고 착실한 성장을 지속하게 하는 것은 경기를 과열시키지 않는 것이고 경기를 과열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合理的인 判斷으로 현재의 好景氣를 順理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경기를 순리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은 과투자, 과소비, 과욕 및 지나친 기대 등을 하지 않고 능력과 효율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